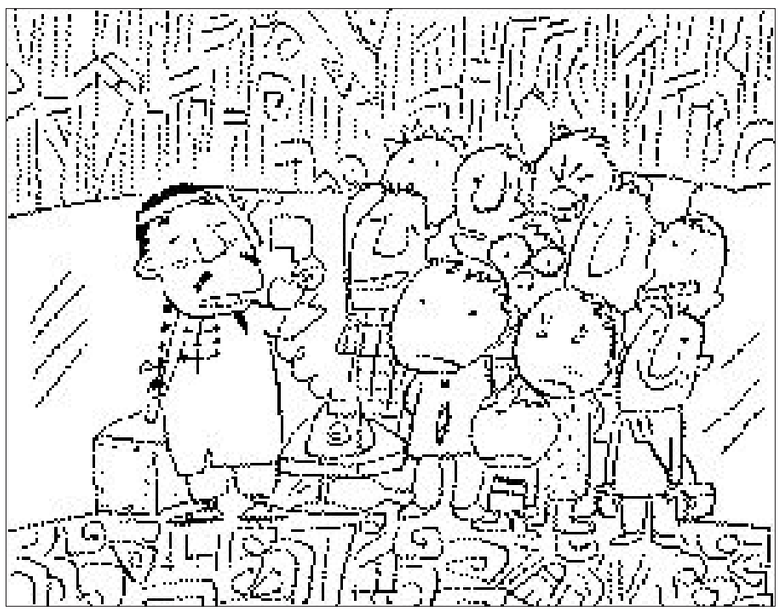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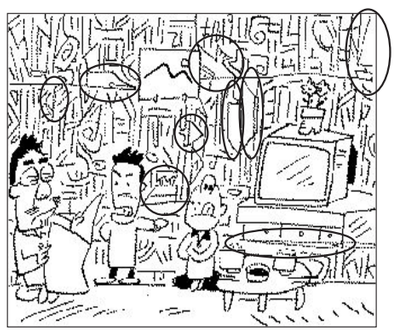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58 >



찾아보세요 셔틀콕, 스푼, 돛단배, 종, 볼링핀, 병아리, 음표, 열대어, A자

업종별로 하는 거짓말

선생님: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웨딩 사진사: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네요.
중국집 주인:네~ 지금출발했습니다.
신인배우: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정치가:단 한푼도 안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엄마:대학 가면 살 빠지니깐 지금은 부지런히 먹어
비행기 조종사: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정답

팽이, 펜촉, 부엌칼, 다리미, 바늘, 대접, 음표, 돛단배, 열대어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명성 〈광주시 북구 연제동〉 안향희 〈광주시 북구 풍향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월 4일 '인간 국보' 양주동 박사 별세

처음 보는 택시 기사에게 "국보가 탑승했으니 각별히 운전을 조심해라"고 지시하고 노상 방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국보를 몰라보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뿐인가. "'국보'가 보아주는 것만도 영광"이라며 신문 무료 구독을 고집하고, 도둑맞을 물건이 없으니 낼 필요가 없다고 방범비조차 내지 않았다.

지난 1977년 2월 4일 세상을 떠난 무애(无涯) 양주동 박사의 일화다.

자신을 '국보(國寶)'라고 자처했던 그는 타고난 학문과 재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국문학자이자 수필가이며, 시인이자 논객, 평론가이고 탤런트 교수, 재담가이면서 기인이었다.

1903년 경기도 개성서 태어나
'향가·이두 연구' 국학계 권위자

한 때 고교생들이 달달 외웠던 '찬기파랑가'를 기억할까. 양 박사의 해독이다.

그는 지난 1903년 경기도 개성 태생으로 어렸을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났으며 한학과 한시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1937년 돌연 국학자로 변신했다.

'청구학총'19호에 '향가의 해독, 특히 원왕생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 일제 말기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권위에 도전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오구라는 향가 해독이 전무하던 시절에 '향가 및 이두의 연구'(1929)를 발표함으로써 권위 있는 학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일본 학계의 아성을 극복하고 향가 연구분야에 독보적 위치를 확보한 그는 42년 국문학의 기념비적인 향가 해독과 연구의 집대성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硏究)', 47년 고가연구의 속편인 '여요전주(麗謠箋注)'를 통해 신라 향가와 고려가요연구의 기초를 확립하며 최고 국학자의 반열에 올라선다.

〈양주동〉

특히 조선고가연구의 경우 정확한 고증의 나열, 도도하고 유려한 문장,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의 전개 등으로 당시 오구라로부터 '조선의 천재요, 위대한 학자'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게 했던 그의 역저다.

또 양 박사는 화제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결혼주례 청탁이 들어오면 선금부터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원고료를 흥정하는 '점잖치 못한'사람이라는 평도 많았다.

양 박사가 인기 라디오프로그램에 단골손님으로 출연했는데, '인간 국보'얘기는 그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그의 돈에 얽힌 일화도 많다. 어느 방송국에서 좌담을 마치고 세 분의 연사가 도합 700원의 사례금을 받았는데, 양 박사가 "세 사람이 200원씩 나누고 백원이 남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많이 했으니 백원은 내가 갖기로 합시다"라고 했다고 한다.

말년의 양 박사는 심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다 74세로 고달픈 삶을 마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49.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이 선수가 한국선수로는 네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소속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미들즈브러가 이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제 2의 축구 인생을 꾸리게 됐습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영표(토트넘)·설기현(레딩)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동국 ② 박주영 ③ 이천수 ④ 조재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1일(음 12월 13일 乙丑)

子 36년생 겉은 조용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48년생 엎드려 눈물 날일이 혹 있을까 걱정이다. 60년생 주변의 달콤한 詐言에 속지 마라. 72년생 大苦는 없지만 得祿도 없다. 84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電하고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9, 43

丑 37년생 平吉한 하루이나 고민은 있다. 49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6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라. 73년생 활동상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 행운의 숫자 : 11, 30

寅 38년생 가내 우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 해보라. 62년생 천지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라. 74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면 발전은 계속된다. 행운의 숫자 : 20, 34

卯 39년생 보증은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야할 때. 51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63년생 자녀로 불편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75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2

辰 40년생 부부간에 소사 냉전을 조성하는 형상이니 서로가 이해하라. 52년생 형제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때. 64년생 유흥 속에 虛送歲月 한탄 하랴. 76년생 부부일전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행운의 숫자 : 22, 35

巳 41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53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 65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실리위주로 정리해야. 77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21, 28

午 42년생 옛 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54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66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8년생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부간의 등산으로 意氣投合을 시도해 보라. 행운의 숫자 : 18, 44

未 43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쌍방과실. 55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67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생긴다. 79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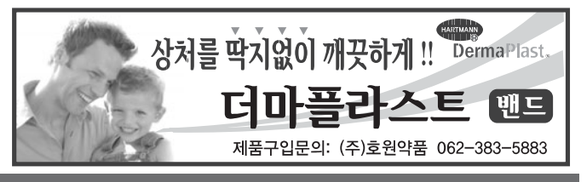
申 44년생 공문서 잡고 눈물날 수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드리라. 56년생 沈滯現狀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아래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68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80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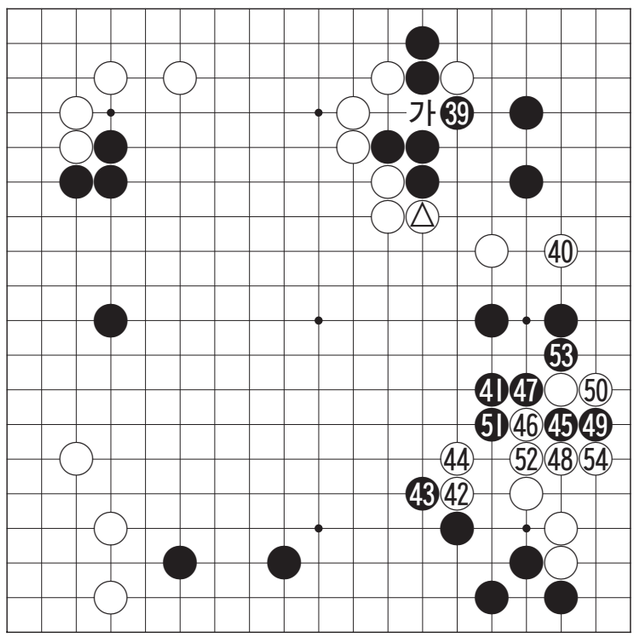
酉 45년생 될 듯 될 듯한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다. 81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손윗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라. 행운의 숫자 : 17, 31

戌 46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8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70년생 큰 투자는 않는 것이 좋으며 신규사업은 피하라. 82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행운의 숫자 : 01, 42

亥 47년생 枯木回春이니 더욱 더 잘 가꿔야. 5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미지수니 끝까지 지켜보라. 71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3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3, 4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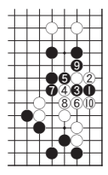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어린이 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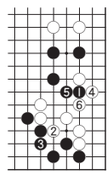
초등 최강부 결승전

맥점을 놓치다 4보(39~54)

白 박은찬 〈수문초 5〉 黑 강지수 〈주월초 6〉



〈참고도 1〉



〈참고도 2〉

백 △로 꼬부린 것이 두터운 수법이며 흑도 39로 호구쳐 20 여집이 넘는 실리를 차지했다.39를 생략하면 '가'로 끼우는 수가 성립한다.

박은찬군은 백 40으로 쳐들어가서 충분하다는 계산. 또 우변의 흑 두점을 공격하는 즐거움도 있다.

흑 41은 모양의 급소며 백 42, 44는 성동격서의 기대기 전법이다. 이때 강지수군은 흑 45로 붙여 모양갖추기에 나섰는데 이 수가 맥점을 벗어난 수로 실착이었다. 이 수는 '참고도1'의 흑 1이 급소로 10까지 선수로 모양을 정비할 수 있다.

그런데 박은찬군이 덜컥 46으로 젖혀 흑의 실수를 응징하지 못하고 만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2를 선수하고 4로 젖혀야 했다. 이 모양은 흑이 불안한 모습이라 백이 유리했다. 54까지 흑이 잘된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양건, 전자랜드배 결승 선착

양건 7단이 30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백호부 준결승전에서 유재성 3단을 349수 끝에 흑 7집 반으로 꺾고 백호부 결승에 선착했다.

전기 대회에서 본선 16강에 올랐던 양건 7단은 이번 4기 대회에서도 본선 티켓을 예약함과 동시에 백호부 패권을 노리고 있다.

양건 7단의 결승 상대는 아직 미정. 다른 조에서는 현재 목진석 9단이 준결승에 올라 최규병 9단-안조영 9단의 대국승자와 결승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총 상금 규모는 5억2천500만원이며, 백호부 우승상금은 7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31>

Can you imagine ~?
~ 상상할 수 있겠어?

A:I am so envious of Tomy and Cindy. **Can you imagine** being able to sail around the world?
B:I would love to be able to some day. But not every one is able to take a two month leave like that.
A:I'm going to put it on my wish lists.
B:Me too.

A:Tomy하고 Cindy가 정말 부러워. 세계 일주 항해를 **상상할 수 있겠어?**
B:언젠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두 달간 휴가를 낼 수는 없는 거지.
A:내가 하고픈 소망 리스트에 올려 놀 작정이야.
B:나도 마찬가지일세.

envious : 부러워하는
leave : 휴가
응용표현
- Can you imagine walking on the moon?
달 위를 걷는 것, 상상할 수 있겠나?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31>

下心(したごころ)みえみえ
속보인다

A:あの人私にすっごく優(やさ)しいんだけど。
B:だぶん食事(しょくじ)に誘(さそ)いたいんだよ。
A:そう?
B:そうだよ。**下心(したごころ)みえみえ**

A:저사람 나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B:아마 밥이라도 같이 하고 싶을걸.
A:그래?
B:그럼, **속이 훤히 보이는데**

下心(したごころ) : 마음속으로 몰래 생각하고 있는 것
すっごく : すごく를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회화체에서만 사용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22>

只是有点儿想家
단지 조금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A: 你最近身体不太好，是不是学习太累了?
nǐzuìjìn shēntǐ bùtàihǎo, shìbushì xuéxí tàilèi
너무 오랜 스윈 부미여이었다. 스무스 배에서 이 아니라이스

B: 不是，只是有点儿想家
bùshì, zhǐshì yǒudiǎnr xiǎngjiā
부스, 즈스 이 우디얼 시앙지아

A: 想家? 明天我们去吃你的家乡菜怎样?
xiǎngjiā? míngtiān wǒmen qùchī nǐde jiāxiāngcài zěnyàng?
시앙지아? 밍티엔 워먼 취츠 니더 지시앙차이 어 구이얌 쓰양이

B: 好啊!
hǎoa!
하오아!

A: 너 요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공부가 너무 힘든 것 아니니?
B: 아니야, 단지 조금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A: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럼 우리 내일 누나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
B: 좋은 생각이야

[单词] [yōuxiàn] 우선, 먼저
想家 [xiǎngjiā] 집 생각이 나다, 집을 그리워하다
成家 [chéngjiā] 결혼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49>

覆車之戒 (복차지계)
엎어질 복, 수레 차, 어조사 지, 삼갈 계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 수레의 엎어진 수레바퀴 자국이 뒤에 오는 수레의 교훈이 된다는 말이다. 즉 이전에 실패한 전철(前轍)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한 이전의 좋고 훌륭한 점은 귀감(龜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품행이 방정하고 귀족의 속물적인 악습에 물들지 않은 두무(竇武)의 딸이 황후가 되자 두무는 장관이 되었다. 이 당시는 환관의 횡포가 극심했다. 관료와 태학생(太學生)들이 환관세력에 저항하였으나, 환관들에게 체포당하여 금고를 당하였다. 두무는 이 사건에 대해 환제에게 "만일 환관의 전횡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진나라 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엎어진 수레의 바퀴를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覆車之戒)"라고 진언하였다. 그 결과 체포된 관리 전원이 풀려나게 되었다.(後漢書·竇武傳)

또 전한(前漢) 효제(孝帝) 때의 명신 가의는 태평성대를 누린 하(夏), 은(殷), 주(周)를 본받고, 망한 진나라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엎어진 앞수레의 바퀴자국은 뒷수레의 경계가 된다(전차복前車覆·후차계後車戒)"고 하였다. 앞사람의 실패에서 뒷사람이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